

익산시 거주 모친의 자녀에 대한 구강건강관리 행태

최미숙
극동정보대학 치위생과

Mother'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to their Children in Iksan

Mi-suk Choi
Keukdong college Dental Hygienics

Abstract

The purpose i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ther'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to their children. Two hundreds sixty seven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among the residents living of Iksan city, Korea.

A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and administered to the samples. The research focused in the following items: the subjects'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education level and employment and so on; their knowledge of plaque; the leading causes of caries, regular dental examinations; dental treatment; their interest in their children's dental health; the frequency of the subjects examining their children's teeth; non-cariogenic food preparation, etc. Being based in collected data, mothers'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to their children were analyzed according to maternal socio-demographic factor and result were following.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ubjects knowledge of dental plaque in accordance with their employment or unemployment and family income. There was no difference in mother's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to their children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 level, the subjects' age and family income. Most of mother answered the main reason of dental caries was that their children did not toothbrush their teeth regularly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 level of fathers and family income. The subjects had a low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preventing caries with the help of fluoride. They didn't have enough understanding of water fluoridation. So it is necessary that active campaigns should be launched to enlighten people in relation to the ways of preventing dental caries with fluoride.

Key words: or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plaque, caries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kkim@naju.ac.kr

I. 서 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만성병 유병율이 증가되고 치아우식증 및 치주병 관리와 구강질환의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악안면 구강조직 기관의 상태를 나타내며 구강건강과 장애의 대표적 요인으로 는 치아 상실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은 대표적인 구강병이다. 치아우식증은 구강질환 중 이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치상실이 파괴되어 치아조직의 결손을 초래하는 치아 경조직 질환으로서 인류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만성 질환이다. 따라서 치아우식증에 대한 예방적 관리는 초기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동기에 형성된 구강건강이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며, 아동기의 구강보건행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아동의 구강보건행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이용과 같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부모의 구강보건행태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친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친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아동의 구강건강에 미치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에 관한 영향은 아동의 질병 발생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모친이 아동의 구강보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태에 관해서 함께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간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Freeman 등¹⁾은 모친의 예방 행위가 소득, 교육, 직업과 연관성은 있으나 예방 목적으로의 방문과 관습수불화의 찬성투표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이²⁾ 연구에서는 모친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활동불능 및 활동제약일

수가 치과의료 이용 횟수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한바 있다. 또한 Becker 등³⁾은 모친의 치료에 대한 태도, 동기 및 믿음이 아동의 구강진료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Rayner⁴⁾의 연구에서는 모친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잇솔질 횟수가 적다고 보고하였다. Green⁵⁾의 연구에서는 영구치와 연관성이 높은 유치의 중요성을 모친이 인지하지 못하므로써 유치의 조기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차⁶⁾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의 아동의 우식치 발생율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것처럼 모친의 구강건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가 모친 자신의 행태나 모친의 행태가 아동의 구강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모친의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에 관한 연구는 최소한 편이다.

이에 저자는 모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이해는 물론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초등학교 아동의 모친 267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2002년 12월 중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학년 303명과 그들의 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지는 각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가정 통신문 형태로 배포하였고, 다시 7일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268부였으나, 조사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267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 직업 유무, 세대수입 등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Frequency (number of person)	Percent(%)			Frequency (number of person)	Percent(%)
Children's sex	Male	133	49.8	Achievement of father	High school graduation	93	34.8
	Female	131	49.1		University graduation	172	64.4
	Nonresponse	3	1.1		Nonresponse	2	0.7
			Achievement of mother		High school graduation	150	56.2
Age of mother	34years Under	139		52.0	University graduation	115	43.1
	35years over	127		47.6	Nonresponse	2	0.7
	Nonresponse	1		0.4			
Age of father	34years Under	47	17.6	Income by generation	150 Manwon Under	18	6.7
	35 - 39 years	142	53.2		151-200 Manwon	75	28.1
	35years over	78	29.2		201-250 Manwon	50	18.7
			251-300 Manwon		56	21.0	
Job existence and nonexistence	Existence	114	42.7	301 Manwon over	55	20.6	
	nonexistence	151	56.5	Nnresponse	13	4.9	
	Nonresponse	2	0.7				

Table 2. Oral Health and Oral Management Behavior by mother of job exist and not exist

		Mother's Job		Total	X ²	P
		Exist	Not exist			
Knowledge of dental plaque	매우그렇다	9(7.9%)	14(9.3%)	23(8.7%)	10.696	0.013*
	그렇다	90(78.9%)	93(61.6%)	183(69.0%)		
	아니다	15(13.2%)	43(28.5%)	58(21.9%)		
	매우아니다		1(0.7%)	1(0.4%)		
Main agent of caries	이를 잘 닦지않는 것	73(64.6%)	103(68.7%)	176(66.9%)	0.927	NS
	단 것을 많이 먹는 것	25(22.1%)	29(19.3%)	54(20.5%)		
	선천적(유전적)요인	13(11.5%)	14(9.3%)	27(10.3%)		
	영양부족	1(0.9%)	2(1.3%)	3(1.1%)		
	기타	1(0.9%)	2(1.3%)	3(1.1%)		
Regular management of dental	그렇다	45(39.8%)	62(41.1%)	108(40.7%)	0.041	NS
	아니다	68(60.2%)	89(58.9%)	157(59.3%)		
Experience fo dental clinic	그렇다	107(95.5%)	141(93.4%)	248(94.3%)	0.557	NS
	아니다	5(4.5%)	10(6.6%)	15(5.7%)		
Interest about children's teeth health	아주 많은 편이다	25(22.3%)	26(17.8%)	51(19.8%)	1.594	NS
	많은 편이다	55(49.1%)	82(56.2%)	137(53.1%)		
	보통이다	31(27.7%)	36(24.7%)	67(26.0%)		
	관심없다	1(0.9%)	2(1.4%)	3(1.1%)		
Oral observe frequence about children	자주 살펴봄	32(28.1%)	45(29.8%)	77(29.1%)	1.469	NS
	때때로살펴봄	66(57.9%)	92(60.9%)	158(59.6%)		
	아프다고할때만	16(14.0%)	14(9.3%)	30(11.3%)		
preparation of caries Non-induction	매우그렇다	11(9.6%)	9(6.0%)	20(7.6%)	2.773	NS
	그렇다	58(50.9%)	90(60.4%)	148(56.3%)		
	아니다	45(39.5%)	50(33.6%)	95(36.1%)		

주)* : 통계학적으로 유의함(p<0.05), NS :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2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자녀의 성별, 모친 및 부친의 연령, 모친의 직업유무, 모친의 학력, 세대수입 등 모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면세균막에 대한 지식, 우식증의 주요 원인, 정기적 구강검진 여부, 구강진료 경험 여부, 자녀의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모친의 자녀에 대한 구강관찰 빈도, 간식 준비 시 우식비유발성 식품준비여부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 모친의 구강보건지식과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행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찰 빈도, 간식 준비시 우식비유발성 식품준비여부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친의 취업여부, 학력, 연령, 세대소득, 부친의 학력별 간식섭취횟수의 평균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시행하여 검정하였다. 통계적 검정시 유의수준은 0.005로 하였다.

한편 모친의 구강보건지식습득경로, 아동의 잇솔질시기, 모친의 치아우식증 예방보건 행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3 통계적 분석

모친의 취업유무, 학력, 연령, 세대소득, 부친의 학력에 따른 치면세균막에 대한 지식, 우식증의 주요 원인, 정기적 구강검진 여부, 구강진료 이용여부, 자녀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 모친의 자녀에 대한 구강 관

III. 결 과

3.1 모친의 취업 유무에 따른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 관리행태

모친의 취업 유무에 따른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는 표 2와 같다.

Table 3. Oral health and oral management behavior by mother's achievement

		Mother		Total	X ²	P
		High school graduation	University graduation			
Knowledge of dental plaque	매우그렇다	14(9.3%)	8(7.0%)	22(8.3%)	4.034	
	그렇다	96(64.0%)	86(74.8%)	182(68.7%)		
	아니다	39(26.0%)	21(18.3%)	60(22.6%)		
	매우아니다	1(0.7%)		1(0.4%)		
Main agent of caries	이물찰뎀지않는 것	100(67.6%)	77(67.0%)	177(67.3%)	5.485	NS
	단 것을 많이 먹는 것	26(17.6%)	28(24.3%)	54(20.5%)		
	선천적(유전적)요인	20(13.5%)	8(7.0%)	27(10.6%)		
	영양부족	2(1.4%)	1(0.9%)	3(1.2%)		
	기타		1(0.9%)	1(0.4%)		
Regular management of dental	그렇다	56(37.6%)	52(45.2%)	108(40.9%)	1.565	NS
	아니다	93(62.4%)	63(54.8%)	156(59.1%)		
Experience fo dental clinic	그렇다	139(93.9%)	109(94.8%)	248(94.3%)	0.090	NS
	아니다	9(6.1%)	6(5.2%)	15(5.7%)		
Interest about children's teeth health	아주많은편이다	26(17.6%)	25(22.7%)	51(19.8%)	5.969	NS
	많은편이다	80(54.1%)	58(52.7%)	138(53.5%)		
	보통이다	42(28.4%)	24(21.8%)	66(25.6%)		
	관심없다		3(2.7%)	3(1.1%)		
Oral observe frequency about children	자주살펴봄	42(28.2%)	34(29.6%)	77(29.1%)	1.441	NS
	때때로살펴봄	87(58.4%)	71(61.7%)	158(59.6%)		
	아프다고할때만	20(13.4%)	10(8.7%)	30(11.3%)		
preparation of caries	매우그렇다	10(6.8%)	10(8.7%)	20(7.6%)	0.938	NS
	그렇다	80(54.1%)	66(57.4%)	146(55.5%)		
Non-induction	아니다	58(39.2%)	39(33.9%)	97(36.9%)		

주) * : 통계학적으로 유의함(p<0.05), NS :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모친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행태는 자신이 생각하는 치면세균막에 관한 지식수준이었다.

'치면세균막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직업을 가진 모친은 78%가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을 하였고, 직업이 없는 모친은 61.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치면세균막에 대한 지식은 전업주부보다 직업을 가진 주부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2 모친의 학력별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행태

모친의 학력에 따른(고졸/대졸이상)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 관리행태는 표3과 같다.

모친의 학력별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

건강관리행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졸이상의 학력에서는 42%, 고졸의 학력에서는 37.6%로 나타났으나 '아니다'는 대졸 이상이 54.8%, 고졸이 62.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또한 '간식 준비시에 아동에게 우식비유발성 식품을 준비해 주는가' 라는 질문에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그렇다'가 57.4%, '매우 그렇다'가 8.7%로 나타난 반면 고졸의 학력에서는 '그렇다'가 54.1%, '매우 그렇다'가 6.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치아를 고려한 우식증유발성 식품을 준비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Table 4. Oral health and oral management behavior by mother's age.

		Mother		Total	X ²	P
		35 age under	35 age over			
Knowledge of dental plaque	매우그렇다	10(7.2%)	13(10.2%)	23(8.6%)	1.669	NS
	그렇다	96(69.1%)	86(67.7%)	182(68.4%)		
	아니다	32(23.0%)	28(22.0%)	60(22.6%)		
Main agent of caries	매우아니다	1(0.7%)		1(0.4%)	7.928	NS
	이틀잘닦지않는 것	96(69.1%)	81(64.8%)	177(67.0%)		
	단 것을 많이 먹는 것	29(20.9%)	24(19.2%)	53(20.1%)		
	선천적(유전적)요인	9(6.5%)	19(15.2%)	28(10.7%)		
	영양부족	3(2.2%)		3(1.1%)		
	기타	2(1.4%)	1(0.8%)	3(1.1%)		
Regular management of dental	그렇다	55(39.9%)	53(41.7%)	108(40.7%)	0.097	NS
	아니다	83(60.1%)	74(58.3%)	157(59.3%)		
Experience fo dental clinic	그렇다	131(94.9%)	118(93.7%)	249(94.3%)	0.200	NS
	아니다	7(5.1%)	8(6.3%)	15(5.7%)		
Interest about children's teeth health	아주많은편이다	22(16.4%)	29(23.2%)	51(19.9%)	2.440	NS
	많은편이다	74(55.2%)	64(51.2%)	138(53.2%)		
	보통이다	37(27.6%)	30(24.0%)	67(25.8%)		
	관심없다	1(0.7%)	2(1.6%)	3(1.1%)		
Oral observe frequence about children preparation of caries	자주살펴봄	42(30.2%)	35(27.8%)	77(29.1%)	0.234	NS
	때때로살펴봄	81(58.3%)	77(61.1%)	158(59.6%)		
	아프다고할때만	16(11.5%)	14(11.1%)	30(11.3%)		
Non-induction	매우그렇다	10(7.3%)	10(7.9%)	20(7.6%)	0.664	NS
	그렇다	74(54.0%)	74(58.3%)	148(56.1%)		
	아니다	53(38.7%)	43(33.9%)	96(36.3%)		

주) * : 통계학적으로 유의함($p<0.05$), NS :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3.3 모친의 연령별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

모친의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는 표 4와 같다.

모친의 연령에 따른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우식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35세 이상의 연령에서(15.2%) 선천적(유전적) 요인이 그 원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34세 이하에서는 6.5%만이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선천적 요인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3.4 세대 수입별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

세대 수입에 따른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는 표 5와 같다. 세대수입별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치면세균막에 대한 지식수준 뿐 이었다.(P < 0.05) 대체적으로 세대 수입이 많을수록 치면세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Oral health and oral management behavior by Family income

항 목	Family income					계	X ²	P
	150만원 이하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300만원	301만원 이상			
Knowledge of dental plaque	매우그렇다	2(11.1%)	4(5.3%)	4(8.0%)	1(1.8%)	10(18.2%)	21(8.3%)	26.952 0.008*
	그렇다	12(66.7%)	52(69.3%)	34(68.0%)	40(71.4%)	38(69.1%)	176(69.3%)	
	아니다	3(16.7%)	19(25.3%)	12(24.0%)	15(26.8%)	7(12.7%)	56(22.0%)	
	매우아니다	1(5.6%)					1(0.4%)	
Main agent of caries	이름잘닫지 않는 것	9(50.0%)	60(80.0%)	34(68.0%)	32(57.1%)	34(61.8%)	169(66.5%)	23.937 NS
	단 것을 많이 먹는 것	5(27.8%)	6(8.0%)	13(26.0%)	14(25.0%)	15(27.3%)	53(20.9%)	
	선천적(유전적)요인	4(22.2%)	9(12.0%)	3(6.0%)	7(12.5%)	5(9.1%)	28(11.0%)	
	영양부족				2(3.6%)	1(1.8%)	3(1.2%)	
	기타				1(1.8%)		1(0.4%)	
Regular management of dental	그렇다	7(38.9%)	23(30.7%)	26(52.0%)	23(41.1%)	23(42.6%)	102(40.3%)	5.884 NS
	아니다	11(61.1%)	52(69.3%)	24(48.0%)	33(58.9%)	31(57.4%)	151(59.7%)	
Experience fo dental clinic	그렇다	18(100%)	67(90.5%)	47(94.0%)	53(94.6%)	53(96.4%)	238(94.1%)	3.340 NS
	아니다		7(9.5%)	3(6.0%)	3(5.4%)	2(3.6%)	15(5.9%)	
Interest about children's teeth health	아주많은편이다	3(16.7%)	11(14.9%)	12(24.5%)	9(17.0%)	14(26.4%)	49(19.9%)	5.961 NS
	많은편이다	11(61.1%)	39(52.7%)	24(49.0%)	29(54.7%)	27(50.9%)	130(52.6%)	
	보통이다	4(22.2%)	23(31.1%)	13(26.5%)	14(26.4%)	11(20.8%)	65(26.3%)	
	관심없다		1(1.4%)		1(1.9%)	1(1.9%)	3(1.2%)	
Oral observe frequency about children	자주살펴봄	7(38.9%)	19(25.3%)	13(26.5%)	15(26.8%)	19(34.5%)	73(28.9%)	5.099 NS
	때때로살펴봄	9(50.0%)	44(58.7%)	30(61.2%)	37(66.1%)	31(56.4%)	151(59.7%)	
	아프다고할 때만	2(11.1%)	12(16.0%)	6(12.2%)	4(7.1%)	5(9.1%)	29(11.4%)	
preparation of caries Non-induction	매우그렇다	1(5.6%)	5(6.8%)	5(10.0%)	2(3.6%)	7(12.7%)	20(7.9%)	6.010 NS
	그렇다	10(55.6%)	41(56.2%)	24(48.0%)	33(58.9%)	33(60.0%)	141(56.0%)	
	아니다	7(38.9%)	27(37.0%)	21(42.0%)	21(37.5%)	15(27.3%)	91(36.1%)	

주)* : 통계학적으로 유의함(p<0.05), NS :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3.5 부친의 학력별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

부친의 학력에 따른 모친의 구강보건행태 및 아동구강건강관리행태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치아우식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를 잘 닦지 않는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남편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모친의 67.3%가 남편이 고졸이하인 모친에서는 67.4%가 이를 잘 닦지 않는 것이 치아우식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 것을 많이 먹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남편이 대졸이상의 학력인

모친에서 24%, 남편이 고졸이하의 학력인 모친에서는 14.1%로 나타났다.

3.6 모친의 특성별 자녀의 간식섭취횟수

모친의 특성별 자녀의 간식섭취횟수는 표 7과 같다.

자녀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간식 횟수는 모친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서 평균 1.91회였으나 고졸이하에서는 평균 1.80회로 나타났고, 가계 월수입에 따른 간식섭취 횟수는 251~300만원 사이가 평균 2.00회였으나, 201~250만원에서는 평균 1.90회로 나타났다. 모친의 특성에 따른 자녀의 간식섭취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Table 6. Oral health and oral management behavior by father's achievement

		아버님의 학력		계	X ²	P
		고졸	대졸이상			
Knowledge of dental plaque	매우그렇다	4(4.3%)	18(10.5%)	62(8.3%)	11.083	NS
	그렇다	62(66.7%)	120(69.8%)	182(68.8%)		
	아니다	26(28.3%)	34(19.8%)	60(22.6%)		
	매우아니다	1(1.1%)		1(0.3%)		
Main agent of caries	이를잘닦지않는 것	62(67.4%)	115(67.3%)	177(66.8%)	16.420	0.037*
	단 것을 많이 먹는 것	13(14.0%)	41(24.0%)	54(20.4%)		
	선천적(유전적)요인	16(17.4%)	12(7.0%)	28(10.6%)		
	영양부족	1(1.1%)	2(1.2%)	3(1.1%)		
	기타		1(0.6%)	3(1.1%)		
Regular management of dental	그렇다	33(35.5%)	75(43.9%)	108(40.9%)	1.888	NS
	아니다	60(64.5%)	96(56.1%)	156(59.1%)		
Experience fo dental clinic	그렇다	86(94.5%)	162(94.2%)	248(94.3%)	0.087	NS
	아니다	5(5.5%)	10(5.8%)	15(5.7%)		
Interest about children's teeth health	아주많은편이다	14(15.1%)	37(22.4%)	51(19.7%)	5.687	NS
	많은편이다	51(54.8%)	87(52.7%)	138(53.5%)		
	보통이다	28(30.1%)	38(23.8%)	66(25.6%)		
	관심없다		3(1.8%)	3(1.2%)		
Oral observe frequence about children preparation of caries	자주살펴봄	25(26.9%)	51(29.7%)	76(28.7%)	3.532	NS
	때때로살펴봄	54(58.1%)	104(60.5%)	159(60.6%)		
	아프다고할때만	14(15.1%)	16(9.3%)	30(11.3%)		
Non-induction	매우그렇다	5(5.5%)	15(8.7%)	20(7.6%)	2.265	NS
	그렇다	49(53.8%)	97(56.4%)	146(55.5%)		
	아니다	37(40.7%)	60(34.9%)	97(36.9%)		

주)* : 통계학적으로 유의함(p<0.05), NS :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7> 모친의 특성별 자녀의 간식섭취횟수

항 목	평균간식섭취횟수	T(F)	P	
모친의 직업	유	1.83±0.71	T=-0.097	0.923
	무	1.84±0.85		
모친의 학력	고졸	1.80±0.78	T=-1.137	0.257
	대졸이상	1.91±0.80		
모친의 연령	34세이하	1.83±0.81	T=0.123	0.902
	34세이상	1.84±0.77		
가계 수입	150만원 이하	1.44±0.62	F=1.931	0.106
	151-200만원	1.78±0.69		
	201-250만원	1.90±0.90		
	251-300만원	2.00±0.79		
부친의 학력	301만원 이상	1.85±0.79	T=-0.303	0.762
	고졸이하	1.82±0.75		
	대졸이상	1.86±0.81		

3.7 모친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습득경로
모친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습득경로는 표 8과 같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 응답자의 68.9%가 '치과 방문'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나 라디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42.7%, '친구 또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1%, '신문이나 잡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25.1%였다. '건강 강좌 또는 강연회'라고 응답한 사람은 6.0%로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모친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불소 이용 치아우식증 예방법

치아우식증 예방법으로서 '불소를 이용한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불소치약의 이용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80.2%에 달해 불소치약을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치아에 불소도포(43.0%) 불소용액 양치(40.7%), 상수도 불소화(31.9%), 불소알약 섭취(3.4%)순으로 나타났다.

<표 8>모친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습득경로

항 목	내 용	빈 도(%)
구강건강 지식습득	신문이나잡지	67(25.1%)
	TV나 라디오	114(42.7%)
	친구가족	75(28.1%)
	치과방문	184(68.9%)
	건강강좌 강연회	16(6.0%)
	기타	5(1.9%)

<표 9> 모친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불소이용 치아우식증 예방법

항 목	내 용	빈 도(%)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법	불소알약	9(3.4%)
	불소용액 양치	107(40.7%)
	불소치약	211(80.2%)
	상수도 불소화	84(31.9%)
	불소도포	113(43.0%)

3.9 아동의 잇솔질 시기

아동의 평소 잇솔질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 는 표10에 정리하였다. 대체적으로 식 후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잇솔 질 시기는 아침 식사 후로 61.0%의 아동이 아침식사 후 이를 닦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녁식사 후 59.6%, 취침전 44.9%, 아침식사 전 32.65%, 점심식사 후 24.0%순으로 나타났고 간식 후 이를 닦는 경우는 8.2%로 낮았다.

Table 10. Toothbrushing time of Childrens

	Content	Frequence(%)
Toothbrushing time of Childrens	Before breakfast	87(32.6%)
	Breakfast after	163(61.0%)
	Before lunch	0(0.0%)
	Lunch after	64(24.0%)
	Before dinner	8(3.0%)
	Dinner after	159(59.6%)
	Before sleep	120(44.9%)
	After snack	22(8.2%)

3.10 모친의 아동치아우식증 예방목적 행위 아동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모친이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규칙적인 잇솔질을 위한 노력이 전체 8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치면열구전색이 44.4%, 당분 섭취제한이 41.0%, 정기적 치과상담이 25.6%,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이 17.7% 순이었다.

Table 11. Caries prevention behavior of mother

	content	Frequence(%)
우식 예방을 위한	Regular toothbrushing	226(85.0%)
	limit sugar intake	109(41.0%)
	Regular counsel of dental	68(25.6%)
모친의 노력	Using fluorine	47(17.7%)
	치면열구전색	118(44.4%)

IV. 고 찰

아동 구강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강병에 기인하는 고통을 제거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것이다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경제적 성장, 메스미디어의 발달, 치과의료 사업의 발달 및 1989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따라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아동의 구강질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위주가 되는 구강건강관리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동 구강보건은 그 주된 대상이 6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그들의 실천 장소에 따라서 가정 및 학교 구강보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의 구강보건은 그들의 일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는 평생의 구강건강이 기틀이 된다. 특히, 여성의 학력수준상승과 사회진출 등으로 결혼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모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동의 구강건강에 미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구강건강 신념, 치과의료 이용, 질병 예방 행위는 모친의 구강건강 신념,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Chen(1984)은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신념, 발병예방 행위가 아동의 구강예방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동시에 아동의 발병예방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친의 영향요인에 따른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치아우식증은 인류에게 가장 많은 질병중의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치아우식증인 치주병에 이완된 채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치고 질환은 때로 그 증상이 미미하기도 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치아의 영구적 손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 중 하나인 잇솔질과 불소이용법, 식이조절, 예방적인 치과방문 등 식이행동과 위생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람들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방문시 동통을 주로 내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정도로 예방자원의 내원빈도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친의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Cohen (1984) 등은 모친의 학력과 치아우식증 경험도간의 관계를 조사한 바, 고학력의 자녀일수록 우식증경험치수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일수록 질병예방행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며 효과적인 우식증예방법인 잇솔질은 아동기의 좋은 습관이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습관을 습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행 연구에서 Hein(1954)은 잦은 잇솔질로 인하여 우식유발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Glickman(1975)은 잇솔질 사용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Kelstein (1952)은 어렸을적 올바른 잇솔질 습관은 중요하다고 하였고, 안용순(2000) 등의 연구에서도 평소 잇솔질 습관의 인식 및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모친의 2/3가 잇솔질을 잘 하지 않아서 우식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의 우식예방을 위하여 하는 노력 중 가장 많은 방법이 잇솔질인 것으로 나타나 치아우식증 예방법 중에서도 잇솔질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 예방법 중 식이조절법은 개인의 섭취습관과 식단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당분섭취 회수와 양을 줄이고 이상적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과정을 말한다. 많은 우식성 식품의 섭취가 간식을 먹을때 일어나므로 간식을 섭취할

때 우식성 식품을 피하는 것은 우식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친의 약 2/3는 간식시 비우식성 식품을 먹이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평소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습득경로는 전체 68.9%가 '치과 방문'이라고 응답해 이지영(1996) 연구에서 신문, 잡지, 책(65%)에서와 친구, 가족(55%)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치과 방문 시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은 구강진료기관에서 구강건강 지식을 잘 전달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잘 얻지 못한다는 뜻이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구강건강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모친의 노력으로는 규칙적인 잇솔질이 전체 85.0%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치면열구전색(44.4%), 당분섭취 제한(41.0%), 정기적인 치과 상담(25.6%), 불소를 이용한 우식예방(17.7%)순으로 나타나 잇솔질 습관의 중요성과 치면열구전색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방법인 불소의 이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이수경(1994), 윤경규(1990) 등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불소를 이용한 우식예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은 불소치약(80.2%), 이었으며 다음으로 불소도포(43.0%), 불소용액 양치(40.7%), 상수도 불화(31.9%) 순으로 나타나 가장 우수한 치아우식증 예방법인 상수도 불포화사업에 대한 인식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총괄적으로 보아 대부분의 모친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효과적인 우식예방방법인 불소이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친이 효과적인 아동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

도록 불소관련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참 고 문 헌

1. Freeman HE, Lambert C : Preventive dental behavior of urban mother. J Health human Behavior 6, 141-147, 1965.
2. 이홍수 : 앤더슨-뉴만 모형을 이용한 여성의 치과 의료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 보건학회지, 18(2), 513-525, 1994.
3. Becker MH, Drachman RH, Kirscht JP : Motivation as predictor if health behavior. Health Searvices Rep, 87(9), 852-862, 1972.
4. Rayner JF : Socioeconomic status and factors influencing th dental health practices of mother, Am J Public Health Nations Health, 60(7), 1250-1258, 1970.
5. Green LW : Manual for scoring socioeconomic status for research on health behavior, Pub health Rep. 85, 815-827, 1970.
6. 차문호, 여운택 : 아동의 치아우식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3(1), 125-131, 1986.
7. Chen MS, Tatsuoka M : The relation ship between American woma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and dental health beliefs, Soc SciMed, 19, 971-978, 1984.
8. Cohen HD, Lipsky R, Behar R : Caries diet, dental knowledge and socioeconomic variable in population of 15-year-old Israeli schoolchildren, Community Dent Oral Epidemio, 12 (5), 332-336, 1984
9. Hein D : A study of the effect of frequency of tooth brushing on oral health, J DenRes, 33, 700-708, 1954.
10. Glickman : Preventive periodontics, improving dental practice through preventive measures. C V Mosby Co., St. Louis 1975.
11. Kelstein L : Preventing tooth decay in children, Am J Public health, 7, 74-77, 1952
12. 안용순, 김은숙, 인도선, 정세환, 이홍재 : 성남시 어린이집 원아 어머니의 구강보건 의식과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학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1(1), 83-94, 2000.